

기초어휘의 개념과 중요성

김광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 머리말

교육 장면을 염두에 두고 행해지는 국어 연구, 특히 어휘 연구에서 비
중이 큰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기초어휘에 관련된 연구이다. 이 글은 이
기초어휘라는 어휘 집합의 개념, 그것의 교육적 가치 등을 둘러싼 이론적,
실제적 문제들에 대한 확인, 이 목록의 확보와 보급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점검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우리가 기초어휘라는 어휘 집합을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
는 이 어휘 집합이 한국어(L2)교육이라는 교육의 현장, 특히 초기 교육 현
장에서 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 자료집
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가설이기는
하지만, 용의주도하게 선정된 기초어휘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 어
휘부(mental lexicon)에 단어들을 저장하고 있는 폴더를 대표하는 핵어휘
(core words)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교육의 기초 부
문에 필수적이라는 실용적 측면에서나 혹은 어휘부의 존재 양상을 탐구하
는 데 관련된 이론적 측면에서나 이 기초어휘라는 어휘 집합이 가지는 의

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초어휘에 관련된 주요 이론과 지금까지 수행된 기초어휘 관련 연구의 성과들을 검토하여 정리해 두 고자 한다.

기초어휘라는 어휘 집합은 한국어교육과 어휘 이론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 목록의 조사, 수집을 주관 할 수행 주체에 관해서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대개 이러한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작성된다. 이러한 정리가 조만간 기초어휘의 목록을 확보하기 위한 실제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기초어휘의 개념

기초어휘란 통상 ‘일상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단어 1천 개 내지 2천 개의 목록’을 가리킨다. 이 목록은 외국인 을 위한 언어(L2) 교육에서 초보 단계의 외국어 학습자들을 위하여 사용 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용의주도한 방법을 동원하여 선정된 뒤, 일정한 분류 체계에 따라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¹⁾

영어의 경우 C. K. Ogden 등이 선정한 기초 영어(The System of Basic English) 850어 같은 것이 기초어휘의 대표적인 예로서 유명하다. 이 목록 은 영어가 제2 언어(국제 보조어)로서 국제적으로 학습될 경우에 도움을 주 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선정된 영어 기초어휘의 내용별 분류는

1)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술어로 ‘기초어휘(基礎語彙), 기본어휘(基本語彙), 기준어휘(基準語彙), 기조어휘(基調語彙), 기간어휘(基幹語彙)’ 등이 있는데(窪田富男 : 141-9), 이 술어들이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 영어의 용어로는 기초어휘(basic vocabulary), 기본어휘(fundamental vocabulary), 기간어휘(basic core vocabulary)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초어휘, 기본어휘, 기간어휘’를 구별하여, 기초어휘란 ‘특정 언어에서 그 중추적 부분으로서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단어의 부분 집단’, 기본어휘란 ‘어떤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선정되며 공리성을 가진 단어의 집단’, 기간어휘란 어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어휘조사에서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그 단어 집단의 골격적인 부분 집단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임지룡 1991 : 88에서 재인용).

<표 1>이며, 그 단어들이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된 의미의 수를 각기 다른 연구자들이 조사한 통계가 <표 2>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어휘의 한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그 목록은 비록 850어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단어들이 다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폭이 매우 넓어서 약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표 1> Basic English 각 단어의 의미의 수

유형		의미의 수	각 단어의 의미의 수	각 단어의 의미의 평균
작용어		100어	2, 604	26
사물어	일반어	400어	4, 866	12
	그림 그릴 수 있는 말	200어	2, 970	14. 8
성질어	일반 성질어	100어	1, 272	12. 7
	반대 성질어	50어	713	14. 0
합 계		850어	12, 425	14. 6

(출처: 窪田富男, 1989 : 154, 玉村文郎編, 日本語と日本語教育(上), 明治書院.)

<표 2> 각종 어휘표의 의미량의 비교

	Basic	Thorndike	Palmer	West
사용된 어휘수 (어휘표의 총 어휘수)	850 (850)	850 (1,000)	850 (1,000)	850 (1,000)
850어에 관하여 추정된 OED의 의미의 수	12,425	21,120	19,426	18,171
의미의 평균수	14.6	24.8	22.8	21.3

(출처: 窪田富男, 1989 : 154, 玉村文郎編, 日本語と日本語教育(上), 明治書院.)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한다면, 신익성(1976 : 4)에서 ‘기초어’라고 하여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최소한도로 필요하고 그 이상은 여분의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은 비교적 소수의 낱말’이라고 개념을 규정한 것이라든가, 임지룡(1991 : 89)에서 ‘언어생활에서 빈도수가 높고, 분포가 넓으며, 파생이나 합성 등 이차조어의 근간이 되는 최소한의 필수어’라고 규

정한 것은 모두 기초어휘의 개념에 관련된 국면들을 잘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어휘를 ‘이것만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의 집합’라고 설명한 예도 있다. 이는 외국어 학습의 초급 단계에서 그 단어들을 조합하여 필요한 의미를 표현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선정한다는 하나의 이상적 상황을 상정한 개념이다. 곧 언어 학습의 초급 단계에서, 기초어휘라는 소수의 한정된 단어만을 가지고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일종의 언어적 극한 상황을 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어휘의 성격 중에는 소수의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효율성이 포함된다. 기초어휘를 선정할 적에는 기초어휘의 이러한 성격을 감안하여야 한다.

후술하겠지만 기초어휘 목록에는 생활어휘(survival vocabulary)를 비롯해서 대인 접촉에 필요한 인사에 관한 어휘, 질문 및 응답 등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휘, 대화 장면에서 심리적으로 표현하기가 곤란한, 예컨대 생리상의 필요를 표현하기 위한 어휘 같은 것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런 특징까지 감안한다면 기초어휘라는 목록은 주로 외국어(L2) 교육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선정된 매우 제한된 어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개념 확인에 더하여 기초어휘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관련하여 자주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인용하여 두면 다음과 같다.

기초어휘의 조건(田中章夫, 1988 : 79에서 재인용)

- 1) 그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대신 사용하는 일이 불가능하여, 이 어휘가 없으면 문장을 작성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다른 단어를 대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해진다.
- 2) 다른 복잡한 개념에 대해 새로운 명명이 필요한 경우, 이 단어들을 서로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쉽게 만들 수 있다.

- 3) 기초어휘에 속하지 않는 단어를 설명하거나 정의하는 경우 결국에는 이 기초어휘의 범위에 들어 있는 단어들에 의지하게 된다.
- 4) 대부분의 단어들이 계통발생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 5) 여러 방면의 화제에서 흔하게 사용된다.

이상의 관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기초어휘의 개념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에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어휘목록을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 이론에서 가상하는 바와 같이 두뇌 속에서 언어 운용의 핵을 이루고 있으면서 실제 세계의 체계를 반영하는 실재(實在)의 단어들로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 목록이 효율적인 의사소통기능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 하에 언어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인위적인 목록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기초어휘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시각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관점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어떠한지 간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어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기초적 자료로서 확실한 검증절차를 거쳐 신뢰도가 높은 기초어휘의 목록을 확정하는 일이다. 우리가 신뢰성이 있는 기초어휘의 목록 확보 문제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교육의 장에서 이 목록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3. 기초어휘와 교육용 어휘의 등급

그렇다면 과연 기초어휘의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양이 정확히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내어놓을 수가 없다. 개인 개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휘의 양이 매우 다를 뿐 아니라 그 규모를 정확하게 조사해 내는 방법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교육을 지향하는 현장에서 그 교육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 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의 규모

등 급	어휘량	누 계	성 격	
1	1,845	1,845	교육용어휘	총어휘
2	4,245	6,090		
3	8,358	14,448		
4	19,377	33,825		
5	32,946	66,771		
6	45,569	112,340		
7	125,670	238,010		

그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전체 어휘를 등급화 된 양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어휘교육에서 우리의 관심사인 기초어휘를 포함하는 국어의 어휘체계가 이처럼 등급에 따라서 계층을 이루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L1, L2 교육을 막론하고 교육 장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가정에 따라 등급이 평정(評定)된 어휘목록이 있다면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목적에 따라 5~6만 여에 달하는 어휘 목록을 차근차근 제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등급별 어휘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은 안다고 하더라도 그에 적절한 어휘는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 효율적으로 어휘를 공급할 수 없었다.

기초어휘의 목록은 결국 등급별로 정리된 교육용 어휘 중에서 1등급의

2) 국어교육용(L1) 어휘의 집합과 한국어교육용(L2) 어휘의 집합이 그 등급과 등급별 어휘량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김광혜(2003b)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두 목록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목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단, <표 3>에서도 보이고 있듯이 마지막 5등급에 해당하는 어휘는 오직 L1 교육용으로만 사용되며 L2 교육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교육용 어휘의 전체적인 규모는 5 등급까지 약 6 만 6천 단어이다. 또 전체적인 어휘량을 볼 때, 한국어교육용(L2) 어휘는 국어교육용(L1) 어휘의 절반 정도로 잡는다.

지위를 부여받은 단어의 집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총어휘³⁾를 대상으로 등급화 작업을 수행한 결과로 도출된 목록이라면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것이다. <표 3>에 보이고 있는 등급별 교육용 어휘의 통계는 결과는 보기에겐 간단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실제로 사용된다고 간주되는 어휘의 목록, 즉 총어휘목록을 포착해 내기 위하여 시도된 방대한 작업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김광해, 2003a). 이 작업의 결과에 의하면, 국어의 총어휘목록은 약 23만 어에 달하며, 교육용으로는 1~5 등급, 약 6만 어가 동원될 수 있다.⁴⁾

<표 4> 어휘력을 구성하는 어휘의 수준별 유형

유형	단어 수	빈도	텍스트 등장비율	교수, 학습을 위한 참고
고빈도어	2천	모든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	텍스트 전체 어휘의 87%	이 단어들의 학습에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 꼭 알아야 함.
학술 도구어	8백	대부분의 학술적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	학술적 텍스트 전체 어휘의 8%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이 단어들을 위해 많은 시간 투입해야 함. 꼭 알아야 함.
전문어	주제별로 1천~2천	전문적 텍스트에서 경우에 따라 자주 등장	전문적 텍스트 전체 어휘의 3%	어떤 과목을 학습한다는 것은 해당 교과와 어휘 학습을 포함함. 각 교과 교사가 이 단어들을 다룰 수 있음. 단 국어교사는 학습 전략을 도출 수 있음.
저빈도어	약 12만 3천	자주 등장하지 않음	어떤 텍스트든 2% 이상	이 단어들을 다루기 위한 교수 전략 필요. 이 단어들만을 가르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 필요성은 적음.

(출처: Nation, 1990 : 19)

- 3) 국어사전에는 상당량의 유령어휘(ghost words)가 실려 있다. 이들을 모두 실제로 사용되는 우리말의 어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거한 목록을 만드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컴퓨터에 의한 언어 처리 시에 효율적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어휘목록만을 가려 뽑은 것이 ‘총어휘목록’이다.
- 4) 국어교육용 어휘의 등급별 성격은 다음과 같이 상정된다(김광해, 2003a). 1등급-기초어휘. 2등급-정규 교육이 개시되기 이전에 대개 형성이 된다고 생각되는 어휘. 3등급-사춘기 이전까지 성장하는 어휘. 지적사고 처리어(academic words)가 일부 포함. 4등급-사춘기 이후 급격한 지적 성장과 더불어 확보되는 어휘. 지적사고 처리어가 다량 포함. 5등급-다량의 전문어 포함. 지적 성장이 진문화되는 단계에서 획득되는 어휘.

어휘가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이러한 가설은 어휘 교육 관련 이론의 일반 이론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는다. Nation(1990)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어휘는 통상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유형에 따라 일정한 수준별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어휘체계가 수준별, 또는 등급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가설은 교육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우리가 실제 언어를 운용하는 장면에서 모든 어휘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단어와 쉬운 단어로 구분된다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직관은 곧 어휘의 구조가 등급별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이러한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기초어휘라는 집합은 <표 4>에 제시된 약 2천 개에 달하는 고빈도어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어휘의 특징으로 기술하고 있는 ‘모든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점, 텍스트 전체 어휘의 87%를 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더라도 이 어휘는 기초어휘의 특징과 상통된다는 사실이 재확인된다.

4. 선행 기초어휘 연구

국내에서도 기초어휘의 이러한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그 목록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관련 연구로 보인다. 관련 연구물들의 목록은 <표 5>와 같다. 이 중 김광혜(2003a)는 이른바 메타 계량⁵⁾ 방

5) ‘메타 계량’이란 총어휘의 등급화 작업을 위하여 구상된 방법이다. 이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계량의 결과물로 나온 빈도순 목록을 보면 항상 의심스런 위치에 의심스런 단어들 들어 있기 때문인데, 이는 계량 작업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우리는 이 목록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작업에서는 어휘군을 단어의 중요도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방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이 메타 계량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직접 계량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 제출된 어휘 목록을 하나의 DB에 넣은 뒤 그 목록에 대한 선행

<표 5> 주요 교육용 기초어휘 조사

목적	연구자 연도	제목	어휘량	4 자료 이상 공통어	고립 출현어
L1	임지룡(1991)	기초어휘 연구	1,481	743	416
	서정국(1968)	국어 기본어휘의 연구	1,556		378
	이충우(1992) 기초	국어교육용어휘 연구1	1,585		665
L2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714		44
	배주채(2000)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초급 한국어 사전 개발	925		97
	한국어 세계화추진 위원회(1999)	텍스트 유형별 기초어휘 의 미 빈도, 한국어 교육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	1,015		54
	서상규, 문화관광부 (2000)	“한국어교육 기초어휘 의미빈 도 사전의 개발” 사업보고서	1,087		99
L1+L2	김광해(2003a)	한국어의 등급별 총어휘 선정	1,845		없음

(출처: 어휘 집합, 2003)

법을 사용하여 총어휘를 등급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1등급의 목록을 기초어휘 목록으로 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어휘의 목록으로 1,845단어를 얻을 수 있었다(<표 3> 참조). 이 어휘량은 국내의 연구물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많지만, 일본의 기본어휘 2,000단어 보다는 적다. 1,845라는 어휘량은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에서 그 양을 1,500이나 2,000으로 예리하게 잘라내는 것에 대한 의문이 반영된 결과이다. 어

연구들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어휘의 등급을 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라 도출된 어휘 목록 중 1 등급으로 구분된 목록을 곧 기초어휘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 계량이라는 방법이 지니고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들이 과거의 연구물들에서 지지를 받은 정도를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자동적으로 계량할 수 있다. 둘째, 선행 연구의 어휘 목록에서 돌출적인 단어들의 목록이 확인되므로 이를 제거함으로써 객관성이 높은 목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선행 연구들의 객관성, 타당성까지도 확인하는 부수적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더 상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김광해(2003a) 참조.

휘의 등급을 판단하는 작업 과정에서 어느 곳에서 등급 간의 경계를 확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기초어휘를 1,500개에서 자른다고 할 때, 2등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운명으로 등장하는 1,501위의 단어의 운명은 다행인가 불행인가? 김광해(2003a)에서 1등급의 단어의 양으로 정해진 1,845는 선행 연구물들에 등장하는 빈도를 다시 계량하는 이른바 메타 계량 방법을 적용한 결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경계(境界) 지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다.

김광해(2003b)에서 수행한 연구의 소득이라면, 메타 계량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초어휘 선정을 목적으로 수행된 7개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출현하는 목록과 자신의 결과물에만 등장하면서 나머지 6개 결과물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립적인 목록의 양상을 조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전자를 ‘공통출현어’, 후자를 ‘고립출현어’라 이름을 붙였다. 다음에 그 포착된 743개에 달하는 공통출현어의 목록을 제시한다. 고립출현어는 그 양만을 숫자로 제시해둔다. 실제 목록은 김광해(2003b)를 참조하기 바란다.

4.1. 공통출현어(총 743어)⁶⁾

7회 출현어: 167어

가깝다, 가다01, 가르치다01, 가슴01, 가을01, 가지다, 값, 강01(江), 건다02, 걸다02, 겨울, 고기01, 고맙다01, 귀01, 그래서, 그리다02, 그림01, 기다리다, 기쁘다, 길01, 깨끗하다, 꼭03, 꽃01, 나03, 나무01, 나쁘다01, 나이01, 낮, 내일(來日), 냄새, 너무01, 넣다, 노래01, 놀다01, 놀라다, 높다, 눈01, 눈-물01, 다03, 다니다, 다르다01, 다리01, 다섯, 다시01, 달05, 대답(對答), 던지다, 돈01, 돕다, 동생01, 두다01, 돌01, 뒤01, 들다01, 들다04, 따뜻하다, 딸01, 또, 마시다, 마음01, 만나다, 만들다01, 말01, 말다03, 맛01, 머리01, 먹다02, 먼저, 멀다02, 몸01, 무섭다, 물01, 밀01, 바꾸다, 바다, 바람01, 바쁘다, 밖, 받다01, 발01, 밤01, 밥01, 배

6) 목록 중 어간에 붙은 숫자는 동음이의어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그것과 일치한다.

01, 배우다01, 버리다01, 버스02(bus), 벗다, 병원02(病院), 보다01, 부르다01, 불
 다01, 비01, 빠르다, 사다, 사람, 산01(山), 살04, 살다01, 소리01, 손01, 쉽다, 신
 문10(新聞), 싫다01, 싸우다, 아니다, 아들, 아래01, 아버지, 아이01, 아저씨, 아주
 머니, 안02, 앞, 약07(藥), 어느01, 어디01, 어른01, 어제01, 언니, 여름01, 여자02
 (女子), 열다02, 옆, 오늘, 오다01, 오빠, 옷01, 우리03, 울다01, 웃다, 의사12(醫
 師), 이름, 이야기, 인사02(人事), 일05(-/壹), 있다01, 자꾸01, 자다01, 작다01,
 잠01, 저녁, 적다02, 점심(點心), 종이01, 주다01, 집01, 짧다, 차06(車), 찾다, 책
 01(冊), 책상01(冊床), 춤01, 칼01, 코01, 크다01, 키01, 타다01, 팔01, 팔다, 피다
 01, 하나, 하늘01, -하다03, 학교(學校), 할머니, 할아버지, 해01

6회 출현어: 159어

가운데, 가장01, 감다03, 갑자기, 같이, 개10(個/箇/介), 거기01, 걸-리다01, 고
 향02(故鄉), 곧01, 곳01, 공01, 공장02(工場), 권01(卷), 그01, 그리고, 글자(-字),
 길다02, 깊다, 꿈01, 나가다, 나라01, 나오다, 남다01, 남자02(男子), 남편01(男
 便), 내다02, 내리다01, 너01, 넓다, 넘다01, 놓다01, 누구, 늙다, 늣다, 다음01, 닦
 다01, 달다07, 달리다04, 담다01, 담배, 더01, 데01, 데리다, 도시03(都市), 돌다,
 돌아가다, 돼지, 두01, 들어-가다01, 땀01, 때02, 때문, 떨어지다, 뛰다02, 마리01,
 막다01, 많다, 많이, 말다02, 매다01, 몇, 모두01, 모르다, 모양02(模樣), 모이다
 01, 목01, 못04, 무엇, 문05(門), 문제06(問題), 묻다01, 물건(物件), 미안하다(未
 安-하다), 바로02, 반갑다, 밝다, 방07(房), 번04(番), 벌써, 벽06(壁), 변하다(變-
 하다), 병05(瓶), 보내다, 보-이다02, 봄01, 부엌, 불01, 비다01, 빨리, 새03, 색03
 (色), 서다01, 서로01, 속01, 손님, 시10(時), 시간04(時間), 시골, 시원하다, 시키
 다01, 실01, 싶다, 아내01, 아니02, 아름답다, 아주01, 아침, 안다01, 앓다, 앓다,
 알01, 알다, 어떤, 어렵다, 어리다03, 어머니01, 어서01, 얼굴01, 없다01, 여기01,
 여러, 열03, 옛날, 오르다, 올라가다, 왜02, 운동02(運動), 위하다(爲-하다01), 음
 악01(音樂), 이상하다(異常-하다), 일어나다, 읽다, 입, 입다01, 자동차(自動車),
 자리01, 잘02, 장22(張), 재미01, 저04, 전화07(電話), 조금01, 좋다01, 지금03(只
 今), 지내다01, 짜다03, 쪽05, 처음, 친구02(親舊), 편지02(便紙/片紙), 필요하다
 (必要-하다), -하다01, -하다01, 학생(學生), 형01(兄), 혼자01, 혼들다

5회 출현어: 190회

힘01, 가끔, 가족01(家族), 같다, 개03, 거의01, 걱정, 건너다, 건물03(建物), 것

01, 계시다, 고개02, 고치다01, 공부01(工夫), 교회02(教會), 국01, 그것, 그러나,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그치다, 기술01(技術), 기차01(汽車), 꺼내다, 끄다01, 끝다, 끝나다, 나누다, 나다01, 날01, 남기다, 낫다, 내04, 내려가다, 내려오다, 네03, 년02(年), 논01, 누나01, 눅다01, 닭, 대01, 대답하다(對答-하다), 대하다(對-하다02), 댁01(宅), 덮다, 돌02, 돌아오다, 동네(洞-), 동안01, 되다01, 드리다01, 들01, 들리다03, 들어오다, 등01, 따다01, 따르다01, 땅01, 뜨다05, 뜻, 마을01, 마지막, 마치다02, 맑다01, 매우01, 멈추다, 며칠, 명03(名), 모든, 모시다, 모자08(帽子), 목적03(目的), 몹시, 무겁다, 무슨, 문화01(文化), 물다02, 믿다, 밀다01, 바라다01, 바위01, 반07(半), 방법(方法), 배02, 백05(百), 보-이다01, 복잡하다(複雜-하다), 부르다02, 부자08(富者), 비행기(飛行機), 빠지다01, 사과05(沙果/砂果), 사랑01, 사이01, 사진07(寫眞), 삼06(三), 상04(床), 새끼02, 새벽01, 생각하다, 선물03(贈物), 설명(說明), 섬03, 성06(姓), 세01, 세계02(世界), 세다03, 소03, 소설03(小說), 소식04(消息), 수26(數), 술01, 숨다01, 쉬다04, 시작하다(詩作-하다02), 시장04(市場), 시험03(試驗), 신01, 신다, 쓰다01, 썬다, 아마01, 아무리, 아직01, 아프다, 약속(約束), 언제01, 언제나, 열다01, 열마, 열마나, 엄마, 역14(驛), 역사04(歷史), 열-리다01, 영14(零), 예쁘다, 오래02, 우산01(雨傘), 움직이다, 이09(二/貳), 이것, 이런01, 이르다02, 이-번01(-番), 이제01, 일곱, 일어서다, 일하다, 잃다, 잎01, 자04, 자신01(自身), 잡다01, 전08(前), 전하다(傳-하다), 절02, 젊다, 정도11(程度), 정-말01(正-), 제일04(第一), 좋아하다, 주인01(主人), 죽다01, 줄04, 중요하다(重要-하다02), 지나가다, 지다03, 지방05(地方), 지키다01, 차다02, 착하다, 참01, 참다, 창09(窓), 천03(千), 천천히, 춥다, 치다02, 콩01, 퍼다, 푸르다, 피02, 하루01, 한01, 함께, 회사04(會社), 후07(後), 힘들다

4회 출현어: 227어

가게, 가방01, 가법다, 가지01, 감사하다(感謝-하다05), 강하다(強-하다02), 거리08(距離), 김다02, 건디다, 결혼(結婚), 경제04(經濟), 경찰04(警察), 계속하다(繫屬/係屬-하, 고르다01, 고양이, 고장11(故障), 공기06(空氣), 공책01(空冊), 과거03(過去), 과일01, 과학(科學), 괜찮다, 교실(教室), 구01(九), 구름01, 구하다(救-하다03), 국가01(國家), 국민(國民), 그냥, 그래01, 그래도, 그러다, 그렇지만, 그릇01, 글, 금06(金), 기분01(氣分), 김03, 김치01, 까닭, 꼬리01, 끝01, 끼다03, 나타나다, 날다01, 낫다01, 낡다01, 내밀다, 냇01, 노랑다, 노력01(努力), 노인01(老人), 뉘-이02, 누르다01, 눈04, 느끼다02, 느낌, 늘다01, 다치다01, 당다02, 당신02(當身), 대신03(代身), 대통령(大統領), 덩다01, 돌-리다04, 두드려다, 들-

이다02, 떠나다, 떠오르다, 떡01, 뜨겁다, 마침내, 모01, 목소리, 못하다, 물론01 (勿論), 민족(民族), 바지01, 만드시, 밟다, 방학(放學), 벌06(罰), 별-로01(別-), 부모01(父母), 부인04(婦人), 부탁(付託), 북03, 불다01, 불다, 비누, 빛, 뺨01, 뺨다, 뿌리다, 사11(四), 사랑하다, 사전22(辭典), 사회07(社會), 살피다01, 삼다02, 새06, 새로, 새롭다, 생각01, 생기다, 생선(生鮮), 생일02(生日), 선생01(先生), 선생님(先生-), 설01, 설명하다(說明-하다), 성격02(性格), 세우다01, 소녀02(少女), 소년01(少年), 손가락, 수건(手巾), 순가락, 숨01, 숲01, 스스로, 슬프다, 시계01(時計), 시작01(始作), 십(十), 쌀, 쓰다02, 쓰다06, 씨01, 아기01, 아까, 아무01, 아빠, 아이02, 안01, 안경03(眼鏡), 안녕하다(安寧-하다), 알리다, 약04, 약국02(藥局), 양05(羊), 어깨01, 어둡다, 어땀다, 어찌, 억04(億), 언다01, 얼른02, 얼-음01, 여섯, 여행02(旅行), 연구03(研究), 연습02(演習), 연필(鉛筆), 영화01(映畫), 오른쪽, 오히려, 옮기다, 울다01, 원02, 월02(月), 위01, 위험하다(危險-하다), 유명하다(有名-하다01), 음식(飲食), 이02, 이렇게, 이렇다, 이루다01, 이마01, 이미01, 이유04(理由), 익다01, 인간01(人間), 잇다01, 잇다01, 자기04(自己), 자라다01, 자연01(自然), 자유03(自由), 작년(昨年), 작품01(作品), 잘못, 저것, 저기01, 적03, 전쟁(戰爭), 점10(點), 젓가락, 경02, 정신12(精神), 정치03(政治), 줌02, 종13(鐘), 주26(週), 준비(準備), 줄01, 중01, 중심01(中心), 쥐02, 즐겁다, 지식02(知識), 질문(質問), 짐01, 짐승, 짓다01, 찍다02, 쳐다보다, 초01, 추다02, 태도03(態度), 택시(taxi), 텔레비전(television), 튼튼하다, 톱01, 파다01, 파랗다, 피하다(避-하다), 필요(必要), 하얗다, 한국05(韓國), 항상(恒常), 향하다(向-하다), 허리01, 현재02(現在), 흘리다, 희다

이 목록은 7개의 선행 연구 결과물들의 과반수인 4곳 이상에 공통으로 출현하는 단어들의 목록이다. 만약 공통으로 출현하는 기준을 3곳 이상, 혹은 2곳으로 낮추면 이 목록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단어들은 공통으로 출현하는 회수가 높은 만큼 기초어휘 목록에 도입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어휘라고 간주할 수 있다. 장차 국가 차원에서 기초어휘 목록을 선정하려 할 적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2. 고립출현어

‘고립출현어’란 위의 <표 5>에 제시된 조사 연구의 결과물 중에서 해당

연구에만 출현할 뿐 나머지 다른 6개의 연구 결과로는 등장하지 않는 어휘 목록을 가리킨다. 다음은 해당 연구물에 등장하고 있는 고립출현어의 양이다.

조현용(2000) 44어 / 배주채(2000) 97어 /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1999) 54어 /
서상규(2000) 99어 / 임지룡(1991) 416어 / 서정국(1968) 378어 / 이충우(1992) 665어

이 고립출현어들의 실제 목록은 김광해(2003b)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직관적으로도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이 단어들이 과연 기초어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우며, 따라서 기초어휘의 목록에서 배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단어들이다. 이런 이상한 ‘느낌’을 연구자들도 가졌을 터이지만, 이 단어들의 적절한 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순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 가면서 주관적인 방법에 따라 어휘 선정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단어를 수용하고 어느 단어를 배제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메타 계량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선행 연구들에서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다시 계량함으로써 고립출현어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므로 기초어휘를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 한 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밖의 국어교육 관련 연구물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어휘와 다른 개념으로서 ‘기초어휘’ 혹은 ‘기본어휘’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박봉배(1975)는, 초등교육에서 국어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습용 기본어휘를 조사한 연구이며, 서덕현(1990), 김종학(1995)는 역사언어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M. Swadesh의 기본어휘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와 교육용 기초어휘를 같은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M. Swadesh의 기본어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어휘와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다. 특히 M. Swadesh의 기본어휘가 200어에 불과한 반면, 교육용 기초어휘는 통상 850어에서 2,000어에 달하기 때문에 어휘량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논의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5. 기초어휘 목록의 제시 방법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기초어휘 목록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제출된 바 있다는 사실은 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목록을 확보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시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 이 목록을 단지 가나다순으로 제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양적으로 많은 어휘 목록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소러스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기초어휘 목록도 적절한 분류체계를 취한 시소러스의 형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많은 양에 달하는 어휘 목록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어야만 필요한 경우에 쉽게 검색을 해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어떤 분류체계를 택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는 좀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는 일단 보류해 둔다.

우리나라에서 제출된 기초어휘에 관한 연구 중에서 그 목록을 분류하여 시소러스의 형식으로 제시한 것으로는 임지룡(1991)이 있다. 결과물로 도출된 어휘 목록을 이러한 방법으로 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중요하다. 이 분류체계를 훑어보면 약 1,500여 개에 이르는 단어들이 얼추 우리의 생활을 둘러싼 사상(寫像)들의 전반에 걸쳐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목록은 비록 400여 개에 달하는 동작과 상태에 관한 어휘에 대한 분류가 미진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어느 정도 분류한 상태에서 그 핵어가 될 만한 것으로 기초어휘의 목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정 같은 것이 감지된다. 이는 총어휘를 분류하여 작성하게 될 시소러스의 배치 방식이나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의 구조를 상정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므로 어휘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

사가 되는 내용이다.

삼라만상을 적절히 분류한다는 전제 하에, 그 분류 체계에 따라 기초어휘를 제시하는 이러한 방식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다음에 전제해 둔다. 다만 지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실제 어휘 목록은 할애하고 그 분류 항목만을 보인다.

기초어휘의 분류(임지룡, 1991 : 35-42)

I. 사람에 관한 어휘(201)

1. 인체(ㄱ. 기관 ㄴ. 생리, 질병) 2. 정신 3. 부류(ㄱ. 사람 일반 ㄴ. 친척 ㄷ. 직업) 4. 기타

II. 의식주에 관한 어휘(159)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생활 4. 생필품

III. 사회생활에 관한 어휘(160)

1. 사회조직 2. 제도, 관습 3. 교통, 통신(ㄱ. 교통 ㄴ. 통신) 4. 공공 시설 5. 경제분야(ㄱ. 경제일반 ㄴ. 농업 ㄷ. 어업 ㄹ. 상업 a. 공업)

IV. 교육 및 예체능에 관한 어휘(150)

1. 교육일반 2. 언어 3. 문학 4. 체육, 오락 5. 음악 6. 미술

V. 자연계에 관한 어휘(165)

1. 천체 2. 지리, 지형 3. 자연현상 4. 동물 5. 식물 6. 광물

VI. 감각 및 인식에 관한 어휘(165)

1. 일반부류 2. 공간 3. 시간 4. 수량(ㄱ. 수량 ㄴ. 수량단위) 5. 추상

VII. 동작에 관한 어휘(250)

VIII. 상태에 관한 어휘(150)

IX. 기타(100)

1. 대명사 2. 의존명사 3. 부사 4. 보조동사, 형용사 5. 관형사

6. 기초어휘의 가치

기초어휘의 가치는 주로 교육 장면을 상정할 때 비로소 부각된다. 그러나 그 상황이 자국어(L1) 교육의 경우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L2) 교육의 경우가 다르다. 이미 짐작을 하고 있을 터이지만 이 기초어휘의 목록으로 제시되는 단어들은 한국어를 이미 잘 구사하고 있는 모어 화자들에게는 매우 쉬운 단어들이다. 저 앞에 제시된 743개의 공통출현어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자국어(L1) 교육에서 이 단어들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어린 학령 전 시기 말고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이 목록에다 1등급의 지위를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당위적인 일이기도 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단어들은 5~6세 정도의 아동들이라도 이미 학습해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이다. 요컨대 L1 교육의 경우, 이 목록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 비의도적인 과정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장면에서조차도 의도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여 이 단어들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하기에도 너무 쉽다.

그러나 그 장면이 한국어(L2) 교육으로 바뀌면 이 목록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달라진다. 앞의 인용에서도 몇 차례 등장하고 있듯이 기초어휘의 필요성이 대두된 분야는 바로 L2 교육에서이다. 주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L2 교육에서 언어능력이 발달하는 양상은 L1 교육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L2 교육에서의 학습자는 L1 교육의 학습자에 비하여 연령이 높은 것이 보통이며, 다른 나라 말을 인위적인 환경에서 학습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언어능력을 구성하는 ‘음운, 어휘, 문법, 소통능력’ 등의 모든 부분은 모국어의 습득 과정에서처럼 신비한 선천적 언어 능력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조직된 교재나 교사, 교수 학습 방법이 투입되는 등 의도적

인 교육적 노력을 통해 향상이 이루어진다. 기초어휘의 가치도 이같은 L2 교육의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비록 L1 교육을 전제로 하여 선정된 어휘 목록이라 하더라도 L2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적 중요도가 높은 목록으로 가치가 전환되는 것이다. L2 교육에 이르러 이 목록의 교육적 중요성이 비로소 부각되는 것이다.

L2 교육의 과정이 곧 이러하므로 여기에서 해당 언어의 기반을 이루는 기초어휘 목록을 투입하여 이를 기초지식으로 삼아 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초어휘의 목록이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이 목록이 가지는 풍부한 활용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을 위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 목록은 교수자나 학습자가 학습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7. L1 교육용 어휘와 L2 교육용 어휘

그렇다면 자국어 교육용과 한국어교육용 기초어휘의 목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김광혜(2003b)에 의하면 이 두 가지 목록이 달라져야 한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따라서 의사소통용 어휘라 부르는 어휘 목록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 목록은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L1과 L2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대상으로서 얼마나 비중 있게 수용되느냐 하는 교육적 가치 문제가 상이할 뿐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L2 교육을 위해서는 기초어휘로 간주되는 1등급 어휘 목록에 더하여 ‘생활어휘’와 ‘문화소통용 어휘’가 추가되어야 한다. 엄격히 말하여 이 목록은 기초어휘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지만 교육과정의 초기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초어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이 논문에서 함께 다루어 두기로 한다.

7.1. 생활어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 방문, 여행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생활어휘(survival vocabulary)를 우선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 목록은 우리가 관찰하여 온 일반적인 의사소통용 기초어휘와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학습 대상이 된다. 아직 국내의 연구물을 통해서 L2 교육용 한국어 생활어휘의 목록을 볼 수는 없으나, 실용적인 기초 단계의 한국어 학습서 등에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수합, 정리하는 일은 비교적 수월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도 국립국어연구원 같은 기관에 부과된 과제이다.

7.2. 문화소통용 어휘

‘문화소통용 어휘’란 주로 한국어교육(L2)에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휘 목록이다. 이는 일종의 문화 전문가로서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문화소통용 단어들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L2 교육의 기초단계에 이 문화소통용 어휘 목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문화소통용 어휘의 목록은 그 선정과 중요도 평정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양적으로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은 선에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정해 줄 수 있다. 국립국어연구원(2000)에서 나온 ‘문화기초어’⁷⁾같은 것이 그러한 목적으로

7) 한국문화기초어휘 목록(국립국어연구원, 2000): 가마1, 가마술, 가사, 가야금, 간장, 갈비, 갈비탕, 갓, 강강술래, 강정, , 장국, 거문고, 계, 고누, 고름, 고무신, 고사, 고싸움, 고추장, 곰국, 꽃감, 국, 국밥, 국수, 국악, 국, 귀신, 그네뛰기, 금줄, 감밥, 김장, 김치, 김치, 개, 까치, 깎두기, 쟁과리, 나막신, 나물, 나발, 나전칠기, 냉면, 널뛰기, 노리개, 농악, 누룽지, 다듬이질, 다리밧기, 단군, 단소, 단오, 단청, 대금, 대님, 대보름, 대청, 땡기, 도깨비, 독, 돌, 돌하르방, 동동주, 동정, 동지, 동치미, 된장, 된장찌개, 두루마기, 두부, 떡, 떡국, 떡볶이, 떡배기, 띠, 마고자, 막걸리, 만두, 매듭, 매운탕, 맷돌, 메주, 모시, 무궁화, 무당, 묵, 물레방아, 미숫가루, 미역국, 민요, 바둑, 바지, 박, 박수, 반달이, 반찬, 밥, 백김치, 백설기, 백일, 백자, 버선, 베, 병풍, 보자기, 복날, 복조리, 부럼,

선정된 목록이다.

8. 맺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기초어휘’라는 특별한 어휘 집합을 대상으로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면들을 검토해 왔다. 이제 이 기초어휘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두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한다.

지금까지 여러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국어의 기초어휘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제 국립국어연구원이 이 기관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인 ‘새국어생활’을 통해 기초어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기초어휘의 목록을 확보하고 이를 보급하는 일은 그 성격으로 보아 마땅히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맡아서 수행할 만한 성격의 과제인데, 이 과제는 다른 국어 표준화 관련 사업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 연구자들이 이런 성격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국립국어연구원과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정밀한 검토를 요하는 연구 과정에서는 물론 추후의 보급에 관련된 일련의 업무 추진 측면에서도 그 효율성이 현저히 뒤떨어진다.

국어 문제에 관하여 권위 있는 국어정책 담당 기관에서 이제야 비로소

부채, 부채춤, 북, 불고기, 비녀, 비빔밥, 빈대떡, 사군자, 사당, 사, 방, 사물놀이, 사주, 산신령, 살문, 살풀이춤, 삼계탕, 삼신할머니, 샷갓, 상, 상투, 서낭당, 서당, 서예, 서원, 선비, 설날, 설렁탕, 성묘, 세배, 소고, 소주, 솟대, 송편, 수저, 수정과, 수제비, 송늬, 승무, 시조, 식혜, 신주, 싹, 씨름, 아니리, 아리랑, 안방, 애국가, 약과, 약식, 양반, 연날리기, 옛, 오곡밥, 온돌, 율놀이, 은장도, 인삼, 인절미, 일주문, 장구, 장기, 장독대, 장승, 장아찌, 장옷, 장지문, 저고리, 적, 전, 절, 절구, 절편, 점, 짓갈, 정자, 제기차기, 제사, 족두리, 족보, 종묘 제례악, 죽, 줄다리기, 줄타기, 쥐불놀이, 지게, 진돗개, 징, 짚신, 찌개, 차전놀이, 창, 책거리, 청사초롱, 청자, 청주, 추석, 치마, 칠석, 칼국수, 콩나물, 키, 탈, 탈춤, 탕, 태권도, 태극, 태극기, 태평소, 터주, 투호, 통소, 판소리, 팽이치기, 피리, 하회탈, 한글, 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해장국, 해태, 향가, 향교, 홍살문, 화각, 화문석, 화투, 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매우 뒤늦은 일이다. 선진국들에서는 일찍부터 자기 나라 말의 기초어휘 목록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영어에서는 이미 1936년에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E. L. Thorndike 등이 기초어휘 2,000어휘표를 선정 발표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1944년에 국제문화진흥회라는 단체에서 일본어 교육을 위한 ‘일본어 기본어휘’ 2,000어의 목록을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비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책임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몇몇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수건의 연구와 그 결과물들이 있지만 이 연구들이 연구 결과를 내어놓은 것에 그칠 뿐 지속성을 가지고 보급되면서 활용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 연구가 가지는 한계로 말미암아 이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어휘 목록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에서 비롯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결과물들에 국가적 표준화라는 차원에서 보급될 수 있는 힘이 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다. 이번에 국립국어연구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계기가 되어 신중하게 검토되고 국내에서 공신력을 부여받은 국어의 기초어휘 목록이 하루 빨리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연구 서적>

- 김광해(1989a), 고유어와 한자어의 일대다 대응, 탑출판사.
 김광해(1989b), “이차어휘의 교육에 대하여”, 선청어문 16·17.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광해(1997), 어휘력과 어휘력의 평가, 선청어문, 25.
 김광해(2003a),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김광해(2003b), 국어교육용 어휘와 한국어교육용 어휘, 국어교육 111.
 김중학(1995), 한국어의 기초어휘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김홍규, 강범모(2000),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홍규, 성광수, 홍종선(1998), 대규모 한국어 데이터 베이스의 다원적 통계 분석 연구, 한국어 전산학 2, 한국어 전산학회.
- 문교부(1956),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56,485항목), 문교부
- 박경자, 강복남, 장복명 공저(1994), 언어교수학, 박영사.
- 박봉배(1975), 초등교육에 있어 우리말 기본학습어휘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교대 논문집 8집.
- 서덕현(1990), 기본어휘의 개념과 기초어휘의 위상, -교육용 어휘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71, 7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손영애(1992), 국어 어휘 지도 방법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익성(1972), 言語統計學과 語彙研究, 어학연구 8-1.
- 이영숙(1996), 국어과 지도 대상 어휘의 선정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섭(1976), 幼兒語彙, 서울여대 논문집 5호.
- 이충우(1992), 국어교육용 어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충우(1992), 한국어 어휘교육을 위한 대표어휘 선정, 국어교육 85, 8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충우(1997), 어휘교육과 어휘의 특성, 국어교육 9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임지룡(1991), 국어의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3집,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 정호성(1999),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제 10권 1호, 2000년 봄.
- 조현용(1999a),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어휘교육, 한국어교육 제 10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현용(1999b),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 고향논집 제 25집, 경희대 대학원.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木村睦子(1982), 語彙の計量, 佐藤喜代治 편, 語彙原論, 講座日本語の語彙 (1), 明治書院, 所收.

玉村文郎編(1989), 講座 日本語と日本語教育, 제6,7卷(上.下), 明治書院.

窪田富男(1989), “基本語, 基礎語”, 玉村文郎編, 日本語と日本語教育 6, 明治書院.

田中章夫(1988), 國語語彙論, 明治書院.

佐藤喜代治 編(1982), 語彙原論, 講座日本語の語彙 (1), 明治書院.

樺島忠夫(1989), “語彙の計量”, 玉村文郎編, 1989, 明治書院 所收.

Asher, Nicolas & Alex Lascarides(1996), “Lexical Disambiguation in a Discourse Context”, in Pustejovsky(ed)(1996).

Asher, R. E. (ed)(1994),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Pergamon Press.

Carter, Ronald & Michael McCarthy(1988),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

Cowie, A. P. (1988), “Stable and Creative Aspects of Vocabulary Use”, in Carter(1988).

Nation, I. S. P.(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Heinle & Heinle Publishers.

Pustejovsky, James & Branimir Boguraev(ed)(1996), *Lexical Semantics, -The Problem of Polysemy*, Clarendon Press, Oxford.

<자료>

21세기 세종계획(1999), 전자사전 개발 자료,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2000), 한국문화기초어휘.

국립국어연구원(2003),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을 위한 기초 조사.

국어연구소(1986), 국민학교 교육용 어휘(1, 2, 3,학년용).

국어연구소(1987), 국민학교 교육용 어휘(4, 5, 6,학년용), 18,055항목, 4차 전
교과서, 어린이 신문, 어린이 잡지, 학생작품.

국어연구소(1988), 중학교 교과서 어휘, 중학교어 6권 : 15,765항목, 국사 상
하권 : 7,427 항목.

김왕규 외(2001),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홍규 외(2000), 국어사전 표제어 자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문교부(1956),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56,485항목)

배주채(2000),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초급 한국어 사전 개발, 문화관광부.

서상규(2000), 한국어교육 기초어휘 의미빈도 사전의 개발, 문화관광부.

서정국(1968), 國語基本語彙의 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초등국
어 전체 2차, 빈도 6 이상, 2,365항목) .

서종학(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 연구, 문화관광부.

신현숙 외(2000),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 한국문화사.

연세대(1998), 연세 한국어 사전.

이연섭, 권경안, 정인실(1980), 한국 아동의 어휘발달 연구(1), 한국교육개발
원.

이용백(1969), 國民學校 國語教科書 편찬을 위한 學習用 基本語彙 設定에 관
한 研究.

이용백(1972), 국민학교 학습용 기본어휘, 국어교육 18-20 합병호.(초등 전교
과서, 아동, 성인 잡지 17,104항목).

이용백(1978), 국민학교 입문기 학습용 기본어휘 조사연구, 국어교육 32.(입
문기 1학년 전체, 1,480항목)

이용백, 이인섭, 김승렬(1982), 국민학교 兒童의 語彙力 調査, 국어교육 42,43.
이용백(1972) +1, 2, 3학년 전교과서(4차), 초중고 표준 어휘
목록(15,005항목).

임지룡 외(1998), 수준별 평가 대상 어휘,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전용신, 서봉연(1958), 아동의 어휘 발달 조사, 중앙교육연구소.

정우상(1987), 國民學校 教科書 語彙研究, 國語研究所 研究報告書.(20,108항목).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1999), 텍스트 유형별 기초어휘 의미 빈도, 한국어
교육 기초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 문화관광부.

野間秀樹(1996), 한국어 교육용 기초어휘, 동경외대.